

채비

작고 아름다운 이별

2022년 6월 뉴스레터 vol. 54
한겨레두레협동조합

- 24%의 기적 고인을 추앙하는 사회라면
- 채비가 만난 사람들 채비장례는 대한민국 장례의 미래입니다, 박태호 장례지도사
- 공간채비 이야기 공간채비가 여러분의 모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 채비학교 '채비플랜' 수강생 모집
- 채비특강 이틀 안에 만드는 나의 장례식 영상
- 조합소식 채우고 비우는 채비함을 출시합니다

그리움은 채우고, 슬픔은 비우는 이별을 준비하는 상자 ‘채비함’ 출시를 준비중입니다



‘미리 준비’한다는 의미를 담은 ‘채비함’은 언제 우리에게 올지 모를 죽음을 미리 준비하는 상자입니다. 추억과 기록이 될 만한 사진, 자료, 물품을 담아 언제 올지 모르는 이별을 준비할 수 있으며, 장례식에서는 고인의 유품 테이블로, 장례 후에는 고인을 추억할 수 있는 보관함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유통 확보 및 디자인 출원 중에 있으며, 출시가 확정되는 대로 조합원과 대중에게 선보일 예정입니다.

■ 채비함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잠시만 시간 내어 설문에 참여해주세요 (3분소요)

(링크 클릭) <https://forms.gle/BgE3R6SenFUbBhL1A>

고인을 추앙하는 사회라면



JTBC 드라마 <나의 해방일지>가 지난 5월 29일(일) 16부작을 끝으로 막을 내렸다. ‘견딜 수 없이 촌스러운 삼 남매의 견딜 수 없이 사랑스러운 행복소생기’는 해방을 꿈꾸는 이들의 가슴에 ‘추앙’이라는 두 글자를 새겨 놓았다. 추앙은 누군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거기서부터 해방은 시작된다.

나는 마지막 회를 시청하다가 둘째 ‘창희(이민기 배우 역)’가 등장하는 장면에 주목했다. 편의점을 운영하며 대출금 갚는 것이 유일한 삶의 목표였던 창희. 사랑도 영혼도 없이 편의점과 집을 오가며 반복되는 일상을 이어가던 그는 우연히 동네 평생교육원에 들른다. <조선시대 풍경화로 본 서울> 전시회에 갈 생각이었는데 강의실을 착각하여 ‘한 사람의 생애 마침표를 잘 찍어주는 곳’이라는 주제의 장례지도사 자격 수강반에 잘못 들어간 것이다.

잠시 앉아 있다가 자리를 뜨려던 창희의 귀에 어떤 말이 들려온다.

‘소중한 누군가의 마지막에 곁에 있어 주는 일’.

창희는 할아버지, 할머니, 어머니, 혁수 형의 임종을 지켜보고 함께 한 경험이 있다.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임종을 보는 사람. 이것은 우연일까. 창희의 눈이 환하게 밝아지면서 자신의 해방의 길을 찾은 것처럼 보인다. 장례지도사의 길.

나는 이 장면을 보면서 몹시 불편했다. 매회 드라마가 끝나자마자 제일 먼저 노출되는 ‘보람상조’ 배너광고는 그렇다 치자. 드라마 중간중간에 눈에 띄는 간접광고도 익숙해진 지 오래다. 그런데 이런 좀 달랐다. 자본의 힘이 광고를 넘어 작품의 한 부분으로 침투해 들어온 것 같았다. 작가는 애초에 이 장면을 구상했던 것일까. 그렇다고 보기엔 너무나 생뚱맞다. 나만의 생각이 아니길 바란다.

또 하나의 진실은 장례지도사에 관한 것이다. 장례지도사는 장례의식과 관련된 모든 업무를 총괄한다. 고인의 사망진단서를 확인하고 빈소를 차리고 절차에 따라 염습 과정을 수행한다. 입관이 끝나면 상주의 종교에 따라 제사 의식을 거행하며, 제사 의식이 끝나면 관을 장지나 화장터까지 운반해 관을 묻거나 화장을 한다. 장례지도사는 장례 발생부터 끝까지 책임지는 고마운 존재이다.

창희의 바람대로 장례지도사는 생로병사의 마지막을 담당하는, 꼭 필요하고 존중받아 마땅한 직업이다. 그런데 현실은 결코 아름답지도 고귀하지도 않다. 문제는 이 고귀한 직업에 종사하는 이들을 함부로 대하고 ‘앵벌이’로 전락시키는 왜곡된 ‘현실’에 있다. 창희가 일반 상조회사에 취직한다면 금세 실망하고 돌아서고 말 것이다.

대부분의 상조회사는 장례지도사에게 적절한 대우를 해주지 않는다. 기본급은 쥐꼬리만큼 주면서(아예 주지 않는 곳도 있다) 행사(장례) 때 ‘알아서’ 벌어들여라고 한다. 이 비틀린 구조 속에서 장례지도사들은 순응하며 동화되어 간다.

장례지도사 자격을 가진 이는 대략 2만 5천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하는데, 그중 6천여 명 정도가 현업에 종사하고 있다. 그리고 해마다 대학과 학원 등에서 수백 명의 장례지도사를 배출하고 있다. 고령사회에 접어들면서 사망자가 급증하기에 취업이 쉬울 것 같지만 이미 장례업체와 종사자 수는 포화상태이다. 이런 상태에서 상조회사가 갑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나는 우리 조합에 발을 들이면서 근본적인 의문을 하나 품고 있었다. 왜 장례 현장에 만연한 부정부패와 소비자 피해는 개선되지 않는 것일까. 나는 장례 현장을 관찰하면서 그 원인을 알 수 있었다. 그 근본원인은 유족을 돈벌이(약탈) 대상이나 호구로 보는 상조회사와 그들이 만들어 놓은 그릇된 시스템에 있었다. 그 최일선에 장례지도사가 있다.

상조회사는 대부분 프리랜서인 소속 장례지도사들에게 장례행사 시 유족에게 불필요한 물품 추가와 바가지를 씌우라고 강요한다. 장지나 봉안당 알선 시 발생하는 리베이트(수수료)는 당연히 상조회사의 몫이다. 그렇게 뜯어온 수익의 일부를 장례지도사에게 나눠 준다. 이 왜곡된 노동의 하도급 구조가 바뀌지 않는 한 장례지도사의 노동은 존중받지 못하고 소비자 피해는 계속될 것이다.

우리 조합은 일반 상조회사와 달리 추가와 바가지, 리베이트를 금하고 있다. 그래서 장례지도사들은 우리 조합의 행사를 그다지 반기지 않는다. 그럼에도 우리 조합의 뜻에 공감하고 반기는 장례지도사들은 있었다. 이 자리를 빌려 지난 10여 년간 우리 조합의 뜻에 따라 성실하게 장례행사를 수행해 준 전국의 장례지도사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한다. 그들 덕에 그동안 2천여 건의 장례를 차질 없이 치를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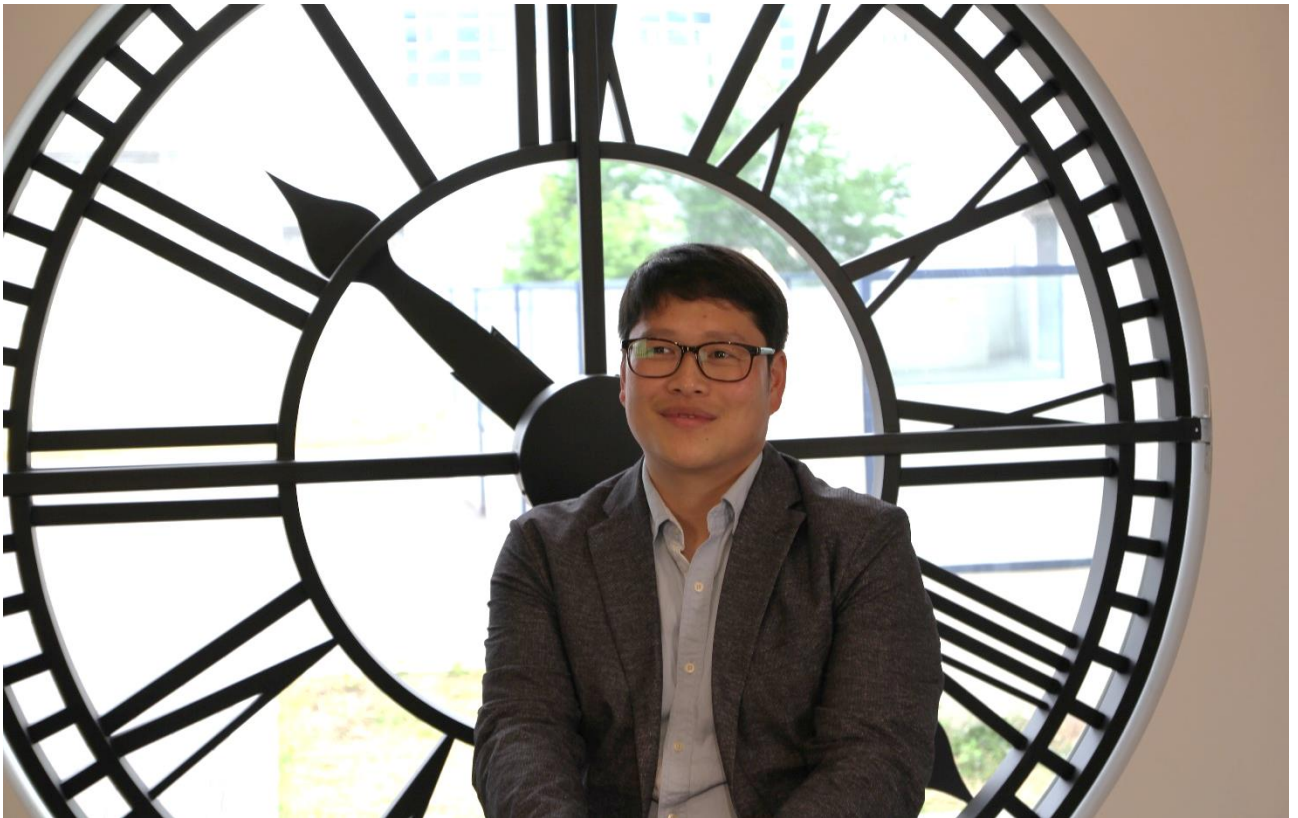
창희가 우리 조합에 취직했으면 좋겠다. 그래야 고인을 추앙하면서, 존엄하게 마지막을 함께 할 수 있을 테니까. ✽

김경환 | 한겨레두레협동조합 상임이사

*전체 납입금 중 운영비율을 의미하는 ‘24%의 기적’은 조합의 중요한 이슈와 가치를 담은 칼럼입니다

채비장례는 대한민국 장례의 미래입니다

박태호 한겨레두레협동조합 상포계 총괄실장



박태호실장은 장례문화를 혁신하기 위해 한겨레두레 창립부터 합류하여, 묵묵한 헌신과 성실함으로 10년 넘게 장례현장을 지켜온 한겨레두레협동조합의 산 증인이다. 그에게 장례지도사란 무엇이며, 채비장례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Q: 한겨레두레협동조합은 어떻게 함께하게 되었습니까?

한겨레두레협동조합은 제가 협동조합이 창립할 때부터 같이 준비하고 창립한 창립 멤버인데요.

사실 상조회사를 그만두고 더 이상 상조 일을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을 때 한겨레두레를 준비하시는 분으로부터 연락이 왔고 좀 괜찮은 상조회사를, 소비자 중심의 좋은 상조회사를 한번 만들어보자고 해서 처음에는 시작만 도와드린다는 생각으로 같이 했는데 그게 이제 인연이 돼서 지금은 벌써 10년 넘게 계속 같이 하고 있습니다

Q: 장례 일을 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무엇입니까?

장례를 하면서 가장 어려웠었던 일은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아직도 가장 힘든 일은 슬픔에 빠진 유족들의 감정을 제가 어루만져 줘야 된다는 겁니다.

유족들은 굉장히 힘든 상황이지만 장례라는 3일간의 의식을 치러야 되는 상황이고 감정에 휩쓸리다 보면 해야 될 것들을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부분들을 장례지도사가 케어를 해줘야 합니다. 힘들어하는 유족들의 마음을 이렇게 공감하면서 장례지도 업무를 잘 진행을 하는 것,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로 가장 힘든 일인 것 같습니다.



Q: 가장 기억에 남는 장례가 있다면?

제가 장례를 짧은 기간에 세 번의 장례를 치러드린 집이 있어요. 그 집 같은 경우에는 아버님이 질병으로 먼저 돌아가셨고 직후에 제가 그 짧은 기간 동안에 가족 2분이 연달아 스스로 목숨을 끊어서 세 번의 장례를 한꺼번에 치러드렸어요.

그 세 번의 장례를 치르면서 장례지도사로서의 역할을 굉장히 고민했습니다. 여러 사정들이 있었지만 사실 장례식이라는 공간에서 유족들이 고인과 제대로 이별하고 애도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그렇게까지 비극적인 상황들이 발생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됐고요. 장례지도사가 장례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장례식 안에서 어떻게 하면 유족들과 고인과의 시간을 의미 있게 가져가고 그리고 유족들이 충분히 애도할 수 있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하게 했던 그런 장례였습니다.

Q: 장례 서비스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장례식의 핵심은 추모와 위로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인을 기억하고 추모하고 그다음에 유족이 위로받을 수 있는 장례가 장례의 본질입니다. 사실 지금의 대부분의 3일장은 고인을 추모하는 모습도 찾아보기 힘들고 유족들이 위로받는 모습도 사실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손님 중심으로 치르는 데 중점이 되는 그런 장례식이고 보이는 모습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런 장례의 본질이 많이 빠져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Q: 기존 상조시장의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제가 처음 이 장례 상조 일을 시작을 할 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처음 제가 일을 시작할 때 급여가 80만 원이었는데요. 그때 당시에 한 달에 장례지도사들이 벌어들이는 수입이 최소 500만 원에서 많게는 1천만 원 이상씩 벌어가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워낙 이 장례시장 자체가 뒷돈과 리베이트로 점철이 돼 있고 굉장히 많은 바가지와 수고비 요구, 노잣돈 이런 것들이 장례시장의 장례지도사들의 수익 구조가 되는 거죠.

이것이 장례지도사만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시장 구조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입니다. 상조회사들이 장례지도사에게 급여를 적게 주니 장례지도사들은 당연히 다른 데서 수입을 창출하려고 할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 뒷돈 리베이트 구조가 끊임이 없는 거죠.

많이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수많은 검은 돈들이 장례식 뒤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고 이것들은 결국 유족들의 주머니에서 나온다는 거죠. 이 장례시장의 구조가 아직도 심각하고 빨리 개선되지 않으면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Q: 한겨레두레협동조합의 상조서비스의 가장 큰 차별점은 무엇입니까?

가장 큰 장점은 일단 가격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가격 경쟁력을 염두에 두고 시작할 때부터 상업화된 상조 장례시장의 대안을 만들고자 했던 것이었기 때문에 유족 중심, 조합원 중심으로 가격을 책정을 하고 합리적으로 청구를 하기 때문에 가격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큰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기존 상업화된 장례식 대비 유족들이 위로받는 장례를 치를 수 있을까 하는 고민들을 계속 해왔고 그런 것들이 저희 장례 서비스에 녹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Q: 채비 추모장례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채비 추모장례는 대한민국 장례의 미래다!

채비 추모장례는 고인이 중심이 됩니다. 대부분의 장례식에서 고인에 대한 추억과 추모를 할 수 있는 시간들이 너무 부족한데 채비 추모장례는 온전히 고인이 중심이 되고 고인과의 추억을 나누고 가까운 분들의 위로를 받는 고인 중심의 미래 지향적인 장례입니다.✱



공간채비가 여러분의 모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대폭 감소하면서 지난 4~5월에는 공간에서 다양한 행사들이 진행되었습니다.

복음화발전소의 스승의 날 행사,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의 포럼과 사전편찬회의, (주)참든생활과학의 개그맨 박준형이 진행하는 쇼핑라이브방송, 어떤 기업에 속한 젊은 직원들의 워크숍, 노동공제 풀빵의 노동공제포럼, SPC그룹 문제로 단식하는 노동자를 위한 기자회견과 대책회의, 마을공동체 포럼, 한국문화학회의 세미나 등 다양하고 많은 프로그램들이 진행되었습니다.

공간채비라는 한 공간이 수많은 모습과 활동을 담아내는 과정은 참 놀랍고 뿌듯한 일이었습니다. 그 중에 한 추모식과 두 행사를 간단히 소개합니다.

4월 첫 주에 공간채비에서 추모식이 있었습니다. 아버님을 보낸 유족이 형제와 친척 몇 분만 초청해서 진행하였습니다.

10여 명의 유족이 30여 명의 조문객을 맞이하였습니다. 소박하고 아름답게 정돈 한 공간채비에서 조문객을 맞이하고 서로 위로하고 깊이 담소를 나누었습니다. 이 모습이 참 따뜻했습니다. 고인이 되셨지만 아버지께서 잔잔히 내려다 보실 것 같았습니다. 일반 장례식장에서는 보기 드문 모습입니다.

조문이 끝난 저녁에 추모식을 진행하였습니다. 어머니의 오랜 지인이신 여성 목사님께서 추모식 중에 위로예배를 진행하셨습니다. 모든 순서가 진실하고 간절하며 잔잔했습니다.

진행하며 돕고 있던 저희에게도 깊은 위로가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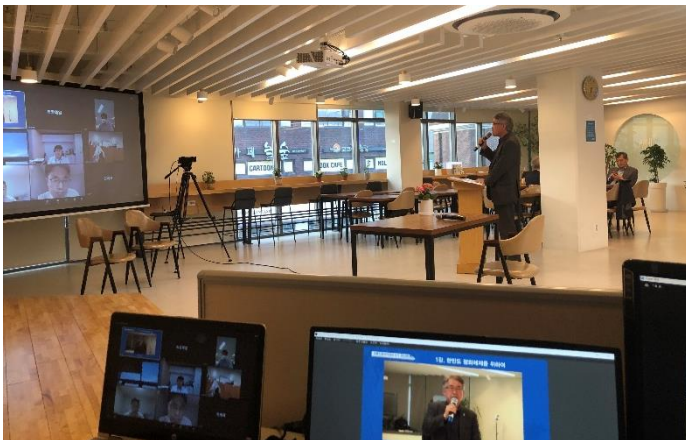
4월부터 7월까지 공간채비에서 매주 수요일마다 ‘희망래일’의 대륙학교 온라인 강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비전과 열정과 전문성을 갖춘 기관이기에 항상 기대가 됩니다. 공간채비에 강사님이 오시고 120인치 대형 스크린으로 줌(zoom) 접속을 해서 전국 각 기관에 속한 수강생들을 대면하듯이 만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 시간을 책임지는 강희태 간사님은 뛰어난 능력으로 공간 담당자인 저보다 훨씬 우리 공간과 장비를 잘 운용하였습니다. 많이 배웠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강의가 있는 시간에 조용히 공간채비에 와 보시기 바랍니다.

5월 21일(토)에 신세계문학출판사(임인호 대표)에서 펴낸 계간지 〈운율마실 7호〉 출판기념회가 있었습니다. 벌써 여러차례 공간채비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임인호 대표는 뛰어난 기업인이면서 등단 시인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번 출판기념회에서는 김명희 시인님과 조마리아님의 시 낭송회와 공연문화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공간채비에 잘 맞는 작고 아름다운 모임이었습니다.

우리 조합원께서도 공간채비를 이런 저런 모습으로 잘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추모와 장례 뿐 아니라 살아가는 모든 여정을 더욱 빛나고 아름답게 만들어 갈 수 있는 한 부분을 공간채비와 한겨레두레협동조합이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전승욱 공간채비 매니저



삶만큼 죽음도 존중되는 세상을 제안하는 책



나는 친절한 죽음을 원한다

박중철 저 | 홍익출판미디어그룹

우리나라 사람 4명 중 3명이 병원에서 죽는다. 병원이 명실상부 죽음의 공간이 된 것이다. 그러나 중증 환자 대부분이 죽음의 시간을 질질 끄는 연명의료의 지옥에 갇혀, 산 것도 죽은 것도 아닌 재앙을 겪다가 생애 동안 쓰는 의료비의 대부분을 마지막 1~2년 동안 쏟아붓다가 사망하게 된다. 죽음의 산업화라는 말이 여기서 나왔다.

병원 사망보다 더 나쁜 죽음은 없다. 잘 죽는다는 것은 집에서 죽는 것이다. 왜냐하면 병원은 주삿바늘이 쉴 새 없이 몸을 찌르고, 종일 시끄럽고, 밝은 불빛으로 잠들 수도 없고, 가족들에게 작별 인사도 못한 채 낯선 사람들 속에서 외롭게 죽기 때문이다. p. 19

한국인은 좋은 죽음을 바라면서도 대부분 그 바람과는 달리 비참하고 쓸쓸한 죽음을 맞이하고 있다. 인생을 아름답고 품위 있게 마무리하기보다는 마지막까지 병원에서 노화,

또는 질병과 싸우면서 치료 과정 중에 사망하는 것이 오늘날의 흔한 죽음의 모습이다. p. 57

이제 화려한 장례식장은 있어도 임종실은 없는 병원의 불친절한 죽음의 시스템을 다시 생각할 때다. 나아가 인간에 대한 예의를 상실한 우리 사회 죽음의 문화를 돌아볼 때이기도 하다. 이를 위해 선행되어야 할 것은 지금까지 우리 사회가 철저히 배제시켰던 죽음에 관한 담론을 다시 삶의 공간으로 돌려놓고 현실의 문제로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만 생명에 대한 맹목적인 집착을 버리고 삶의 연장으로 서의 좋은 죽음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

(출판사 책 소개 중에서 발췌)

‘채비플랜’ 수강생 모집

채비 추모장례는 고인의 가족과 지인이 고인을 기억하고 애도하며 치르는 장례식입니다. 가족 구성원이 원하는 장례식을 준비하기 위해서 사전 상담이 필요합니다. ‘채비플랜’은 이를 위한 조합원 대상 프리미엄 강좌이며 채비 추모장례의 실질적인 내용을 준비합니다.

빠르고 편리해진 세상에서 우리의 죽음과 이별도 간편하게 정리되고 치러집니다. 이별은 고인을 잘 보내는 일이기도 하지만 앞으로 살아갈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갈지 생각해볼 순간이기도 합니다. 채비플랜을 통해 그런 시간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교육 소개

- 교육내용: 채비 추모장례 준비 및 추모식에 필요한 콘텐츠 제작 등
- 대상: 고인과 가족 중심의 특별한 장례식을 준비하려는 분, 미리 장례 준비가 필요한 분, 추모장례를 준비하시는 분 등
- 일정: 2022년 6월 23일(목)/ 6월 30일(목) 오후 4시~ 5시 30분
- 교육 정원: 10명 (선착순 마감)
- 신청: <https://forms.gle/8QaopJKGzpWBJb4a6>
- 교육 장소: 공간채비 메인 홀(서울시 중구 서애로1길 11 헤센스마트상가 201호)
- 문의: 02)722-9517, 720-9517(오전 10시~ 오후 5시)

■ 프로그램

강좌	제목	강의 내용	강의 날짜
1	채비 추모장례란?	- 채비 추모장례 개요와 이해	6/23(목) 1600~17:30
	추모식 준비1	- 나의 생애사 정리하기 - 사진 기록/ 정리하기 - 추모영상 만들기	
2	추모식 준비2	- 추모식의 의미와 의의 - 추도사 쓰기, 조문객 수와 부고 문자 작성, 메모리얼포스트 작성하기 등	6/30(목) 1600~17:30
	가상 추모식	- 유품 전시 해보기와 가상 추도식 진행	

[채비특강] 이틀 안에 만드는 나의 장례식 영상

‘이틀만에 만드는 나의 장례식’은 자신이 세상에 남기고 싶은 내용을 5분 안팎의 영상으로 제작하는 강좌입니다. 일기 강좌를 통해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정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합니다. 제작된 영상은 장례식 등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 개요

- 대상: 간단한 영상 만들기 교육이 필요한 분, 자신의 장례식 영상을 만들어보고 싶은 분
- 일정: 2022년 7월 7일(목)/ 7월 14일(목) 오후 7시~ 9시 30분
- 장소: 공간채비 메인 홀(서울시 중구 서애로1길 11 헤센스마트상가 201호)
- 교육 정원: 10명 내외 (선착순 마감)
- 신청 링크: <https://forms.gle/Fh5jFwNxG7P79hXd9>
- 문의: 02)722-9517/ 720-9517(오전10시~ 오후5시)

■ 프로그램

강좌	제목	강의 내용	일시
1	장례식 영상에 대한 상상 강사: 이현정	- ‘8월의 크리스마스’, ‘신해철의 유언영상’ 등 죽음을 계기로 남기고 싶은 말을 영상으로 만드는 사례들을 레퍼런스로 제공 - 가족과 지인들에게 죽음 후에 들려줄 말을 정리	7/7(목) 19:00~21:30
2	영상 촬영과 간단한 편집 강사: 권혁구	- 핸드폰 등 영상촬영장비를 사용하여 자신의 말을 촬영 - 편집툴을 이용하여 편집 (간단한 촬영과 편집 교육)	7/14(목) 19:00~21:30

■ 강사

이현정

- 다큐멘터리 감독
〈편지〉, 〈192-399:더불어사는집 이야기〉
- 다다무무협동조합 대표

2022. 5월

정재권 조합원 모친상
이흥구 조합원 모친상
조미진 조합원 부친상
전채호 조합원 부친상
김의겸 조합원 모친상

김양주 할머니 시민사회장
조옥엽 조합원 시모상
박영록 조합원 모친상
윤상흠 조합원 모친상
김재정 조합원 부친상

허경원 조합원 배우자상
진용하 조합원 빙부상
이영옥 조합원 모친상
선창규 조합원 자녀상

2022. 4월

박봉균 조합원 부친상
황인호 조합원 빙모상
전승욱 조합원 지인상
김정수 조합원 부친상
장영순 조합원 부친상
이철손 조합원 부친상
이민정 조합원 부친상

오승준 조합원 모친상
권용덕 조합원 부친상
박태호 조합원 지인상
안경호 조합원 모친상
장동순 조합원 큰어머니상
성경아 조합원 부친상

정영순 조합원 형제상
배영천 조합원 부친상
강승훈 조합원 모친상
남택주 조합원 모친상
손봉길 조합원 모친상
서정례 조합원 모친상

2022. 3월

김석균 조합원 빙모상
서상권 조합원 모친상
최진아 조합원 모친상
김승택 조합원 빙모상
윤승용 조합원 빙모상
홍석우 조합원 조모상
김상민 조합원 모친상

임성현 조합원 모친상
박경숙 조합원 부친상
이원상 조합원 조모상
김복자 조합원 배우자상
강명구 조합원 부친상
이수중 조합원 모친상
박봉균 조합원 부친상

권영구 조합원 모친상
조영곤 조합원 부친상
이상진 조합원 부친상
이성희 조합원 시부상
손영순 조합원 부친상
남택주 조합원 모친상
오승준 조합원 모친상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이별 아닌 작별을 위한 시간, ‘사전 장례식’에 대한 신청을 받습니다



홍민정 작가의 장편 동화 ‘모두 웃는 장례식’에서는 주인공 윤서네 가족이 할머니의 마지막 소원인 ‘사전 장례식’을 치르는 과정이 그려집니다. ‘사전 장례식’은 죽기 전에 친척, 지인 등을 초대해 작별 인사를 하는 것입니다.

말기 암환자 김병국씨는 "죽고나서 장례 지내면 뭐하나, 살아있을 때 작별인사 해야지"라고 생각하며, 지인들에게 "죽은 다음 장례는 아무 의미 없습니다. 임종 전 지인과 함께 이별 인사를 나누고 싶습니다. 검은 옷 대신 밝고 예쁜 옷을 입고 함께 춤추고 노래 부릅시다."라는 부고를 보내 살아 생전 마지막 작별인사를 나눴습니다.

망자에게 인사하는 장례식은 더 이상 서로 ‘인사’할 수 없기 때문에 후회가 많이 남습니다. 스스로 하는 헤어짐을 ‘작별’이라 하고, 어쩔 수 없는 헤어짐을 ‘이별’이라고 합니다.

채비장례는 존엄한 이별의 의미를 전달하고자 ‘사전 장례식’을 신청 받아 1팀을 선정, 지원하고자 합니다

■ 사전 장례식 주요 프로그램

생애사 및 생애영상 함께 보기, 추억과 이야기 나눔, 마지막 이별 인사 하기, 음식과 다과 나눔. 위로와 축복의 마지막 이별 인사

*프로그램은 장례식 주인공/가족의 요청으로 함께 기획 및 변경이 가능합니다

■ 주요지원사항

- 행사 기획 및 진행, (공간채비) 대관비, 생애 영상 제작, 행사 영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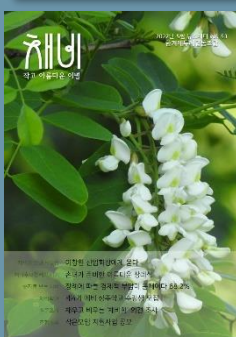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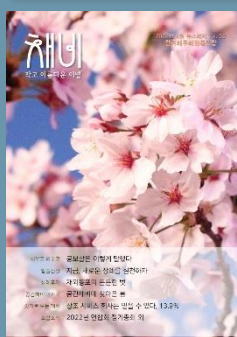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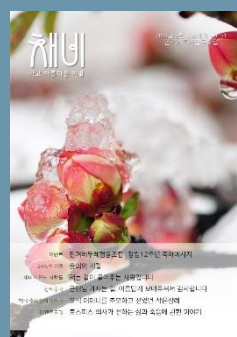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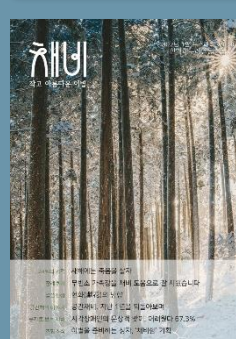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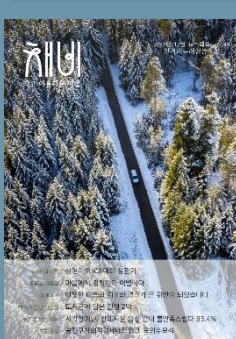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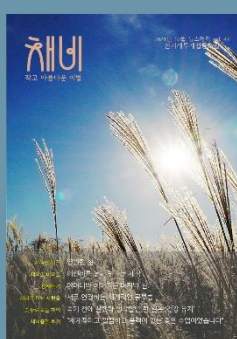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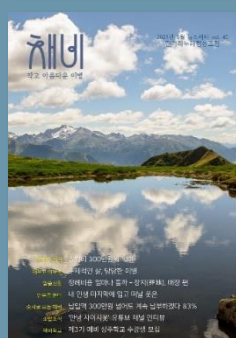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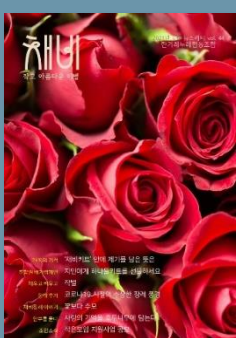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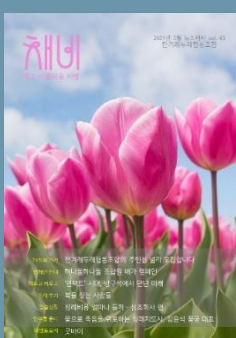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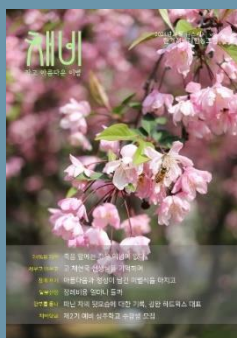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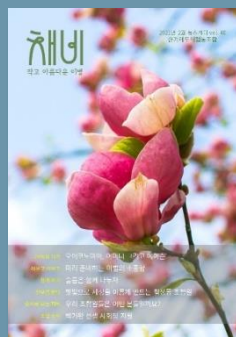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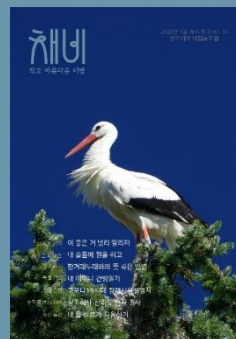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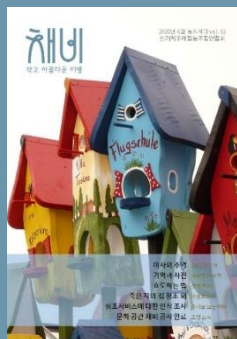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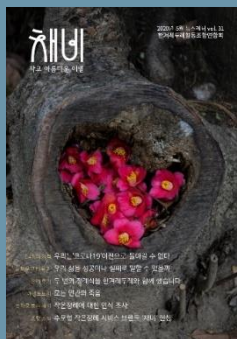
■ 협조사항

- 사전장례식 다큐 촬영 동의 및 언론 홍보 초상권 허용

■ 신청 (링크 클릭) <https://forms.gle/rCyHZcvE8em26Xo2A>

채비레터 과월호 목차

클릭하면 다운로드 됩니다



한겨레두레협동조합은 대한민국 대표 장례서비스 협동조합입니다



한겨레두레협동조합은 풀뿌리공제정신에 공감한 이들이 공동체의 힘으로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자 모였습니다.

조합원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자발적 경제조직이며 상업화한 장례문화를 개선하고 올바른 인식을 고취할 목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직계존비속 누구나 전국 어디에서든 최상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장례지도사와 접객관리사가 같은 조합원으로 한 식구처럼 믿을 수 있습니다.

맞춤형 · 직거래공동구매 방식으로 소박하고 품격 있는 장례를 구현하며 갈수록 고비용화 · 대형화 · 독과점화하는 병원장례식에서 벗어나 추모의 깊이가 있는 ‘작은장례’를 지향합니다.

한겨레두레협동조합

www.chaebi.life

서울시 중구 서애로1길 11 충무로 헤센스마트 B113호(사무실), 상가 201호 (공간 채비)

가입문의 1800-9517 장례문의 1588-9517 대관문의 02-739-9517

채비 뉴스레터는 조합원 참여를 환영합니다

장례 문화에 대한 투고(장례후기, 에세이, 시 등), 조합에 대한 의견, 개업/사업 소개 등 함께 나누고 싶은 글을 보내주세요(master@handurae.org)